자수정을 아파트 내부 마감재로!

건축물 마감재에 신소재 바람 … 항균·생체친화적 효과 추가

건강을 중시하는 세태를 반영하듯 건축물 마감재도 인체 친화적인 소재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특히, 관련기업들이 내놓은 건축물 내부 마감재는 지금까지 사용돼 오던 시멘트 등 일반 소재와는 달리 원적외선이나 음이온 방출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탈취효과 및 방습효과도 좋아 건설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달우자수정(대표 김종고)은 자수정 원석을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 욕실 마감재로, 자수정 분말을 아파트 내부 마감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설회사와 협의중이다.

자수정 원석을 아파트 욕실 마감재로 사용하면 자수정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의 효과를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으며 실내 벽면은 시멘트 작업 후 자수정 분말로 마무리하면 항균작용이 높아 건강한 실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세라(대표 전형탁)도 건축물 내부 작업 마감재인 <음이온 바이오세라 코팅제>를 내놓았다.

<음이온 바이오세라 코티제>는 생체친화적 액상 바이오세라믹으로 탈취작용은 물론 음이온방사, 항균작용, 동식물의 생체 활성화 작용의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이 롤러나 스프레이로 쉽게 바를 수 있으며 건축물의 페인트 벗겨짐, 크랙, 곰팡이에 의한 풍화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생체 친화적인 마감재는 입주자들의 호감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02>